

초청강연 1

방화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및 사례 연구

김 경 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범공안학과

2008년 2월 10일 저녁 8시경 불이 붙은 승례문은 5시간만에 누각을 받치는 석축만을 남긴 채 전소되어 붕괴되었다. 승례문 방화 사건은 온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도 개인의 범죄 행위를 넘어선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국가 파괴행위라는 논란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같은 해 10월 20일에는 강남 소재의 한 고시원에서 정모씨가 자신이 생활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흥기를 마구 휘둘러 6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모씨의 범행 동기는 “세상이 살기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었다. 한편, 2006년~2008년 사이 마포·남대문·용산에 걸쳐 50여회 발생한 연쇄방화 사건으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방화범죄는 다수의 인적 피해와 거액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문화재 및 공공시설에 대한 범죄인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 유형에 속한다. 특히 연쇄방화 사건의 경우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현행법으로 체포되거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장기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방화범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방화범죄의 발생 현황이나 방화범죄자의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왔다. 방화범죄자는 불안정한 아동을 경험하고 알콜남용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고 정신병리적 문제 등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들은 방화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관점에서의 정책 마련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인이 검거된 후에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동기, 정신적 문제 등의 정보 보다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범행 과정에서의 범인의 행동에 초점을 둔 정보들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야에서는 범죄현장에서의 범죄자 행동을 중심으로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Canter & Heritage, 1989; Kocsis, Irwin & Hayes, 1998; Kocsis & Cooksey, 2002). 현장에서 관찰가능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한다면 이는 수사 대상자 및 범위 설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된 바 있으며(Almond et al., 2005; Canter & Fritzon, 1998; Häkkinen, Puolakka & Santtila, 2004; Kocsis & Cooksey, 2002; Wachi et al., 2007), 한국의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Park과 Salfati

(2007)의 살인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Park 등(2008)의 강간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방화범죄자에 대한 현장행동 중심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유형별 방화범죄자의 특성은 수집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통계적 분석 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방화범죄자의 유형론

방화범죄자의 유형은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연구들 뿐만 아니라 동기론적 유형분류를 지향하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주로 수행되어왔다(Geller, 1992; Lewis & Yarnell, 1951). 기존 연구들의 유형론은 표 1과 같은데, 보복, 정신이상, 범죄은닉, 이익추구 등이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방화범죄자의 유형 분류

연구	유형
Rosenbauer (1981)	① 반달리즘에 의한 방화 ② 방화광에 의한 방화 ③ 범죄은닉을 위한 방화 ④ 원한에 의한 방화 ⑤ 금전적 이익 목적 방화
Bradford (1982)	① 우연적인 방화 ② 정신이상 및 정신착란에 의한 방화 ③ 복수를 위한 방화 ④ 성적 만족을 위한 방화 ⑤ 관심 끌기 혹은 도움 요청을 위한 방화 ⑥ 전문적인 방화 ⑦ 어린이들의 방화 ⑧ 복합적인 동기에 의한 방화
Inciardi와 Binder (1983)	①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방화 ② 반달리즘적 방화 ③ 범죄은폐 목적 방화 ④ 보험금 목적 방화 ⑤ 흥분 방화 ⑥ 방화광 ⑦ 시설 내 수용자의 방화 ⑧ 복지사기 방화 ⑨ 공명심을 위한 방화
White (1996)	① 방화광 ② 복수를 위한 방화 ③ 이득을 얻기 위한 방화 ④ 영웅심/허영심을 위한 방화 ⑤ 스릴 추구/파괴를 위한 방화 ⑥ 청소년 방화 ⑦ 범죄은닉을 위한 방화 ⑧ 테러/사회적 항거
Harris와 Rice (1996)	① 정신병자 ② 자기주장을 못하는 사람 ③ 중다방화범 ④ 범죄자

자료: 박형민, 2004; 최인섭과 진수연, 1993 재구성.

한편, Douglas 등(1992)은 검거된 강력범죄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범죄분류매뉴얼을 제작하였는데, 이 매뉴얼에서는 방화범죄를 표 2와 같이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특성 및 인터뷰 전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범죄분류매뉴얼은 범죄자의 동기를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른 피해자, 현장 및 대상물 특성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2. 방화범죄자의 동기에 의한 유형 분류

방화범 유형	내용
손괴방화범 (vandalism-motivated arson)	계획적이고 짓곳은 장난 (willful & malicious mischief)
	동료/집단 압박 (peer/group pressure)
	기타 (other)
흥분 방화범 (excitement-motivated arson)	스릴추구 (thrill seeker)
	관심추구 (attention seeker)
	인정(영웅) (recognition/hero)
	성적 도착 (sexual perversion)
	기타 (other)
보복 방화범 (revenge-motivated arson)	개인적인 보복 (personal retaliation)
	사회적 보복 (societal retaliation)
	제도적 보복 (institutional retaliation)
	집단 보복 (group retaliation)
	기타 (other)
범죄은닉 방화범 (crime-concealment-motivated arson)	살인 (murder)
	자살 (suicide)
	주거침입 (breaking & entering)
	절도 (larceny)
	기타 (other)
이익 방화범 (profit-motivated arson)	사기 (fraud)
	고용 (employment)
	물품 제거 (parcel clearance)
	경쟁 (competition)
	기타 (other)
극단주의 방화범 (extremist-motivated arson)	테러리즘 (terrorism)
	차별 (discrimination)
	폭동/민중 소동 (riots/civil disturbance)
	기타 (other)
연쇄 방화 (serial arson)	연속 방화 (spree arson)
	다중 방화 (mass arson)
연쇄 폭파 (serial bomb)	

자료: Douglas,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방화범죄자의 현장 행동 특성에 의한 유형 분류

위에서 다룬 유형론들은 방화범죄자를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는 현장 중심으로 범죄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들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장을 중심으로 범죄자를 분석하여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활용되고 있으나 프로파일링이 과학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과 논의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논의의 핵심 쟁점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Baumgartner, Ferrari & Palermo, 2008).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현장 행동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Canter & Wentink, 2004; Turvey, 2002; Holmes & Holmes, 1996; Mott, 1999; Meloy, 2000).

Canter(2004)는 범죄현장의 범죄자 행동 특징 및 피해자와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변인화하여 범죄자 및 범죄현장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을 범죄자의 특성과 연결짓고자 하였다. 여러 사건들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 MDS)이 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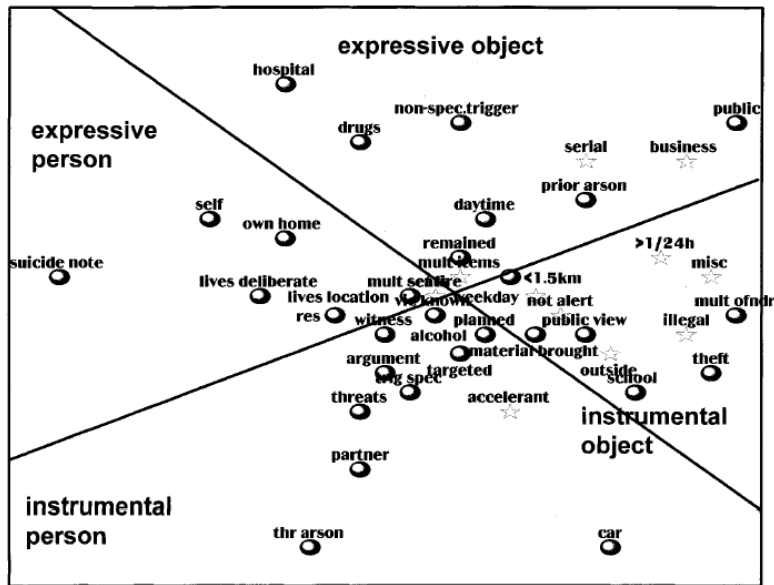


그림 1. Canter와 Fritzon(1998) 연구의 SSA에서 산출된 공간 모형

되고 있다. Canter와 Frizton(1998)은 다차원적도분석을 통하여 방화 행동을 분류하였는데, 이를 위해 195건의 방화사건 수사자료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42개 행동 변인을 추출하고 공격 대상(사람 혹은 사물)과 동기 범주(도구적 혹은 표현적)로 구성되는 4개의 주제(theme)로 방화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였다(그림 1).

또한 Fritzon(2001)은 156명의 방화범죄자를 대상으로 Canter와 Fritzon(1998)의 연구를 재검증하면서 새로운 행동 변인들을 추가하여 4개의 주제를 절망(Deapair), 파괴(Destroy), 과시(Display), 손해(Damage) 유형으로 재명명하여 분류하였다(표 3).

표 3. 현장 행동을 통한 방화범죄자 유형 분류

		동기 범주	
		표현적 (expressive)	도구적 (instrumental)
공격 대상	사람 (person)	· 절망 (Despair) 범죄자의 감정적 스트레스에 의한 방화	· 파괴 (Destroy) 특정한 사람에 대한 보복, 파괴
	사물 (object)	· 과시 (Display) 타인의 관심추구적 방화	· 손해 (Damage) 이득을 얻기 위한 방화.

자료 : Canter와 Fritzon, 1998; Fritzon, 2001 재구성.

표현적 사람 범주인 절망(Despair)에 의한 방화는 방화범의 개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타인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표현적 사물 범주인 과시(Display)적 방화는 타인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대상물을 선정하여 방화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유형에 해당한다. 도구적 사물 범주인 손해(Damage)를 위한 방화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지만 방화범죄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 행해진다. 도구적 사람 범주인 파괴(Destroy)적 방화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된 공격을 하기 위해 행해지는데, 주로 보복적 성격으로 행해지는 유형을 의미한다(Fritzon, 2001). Fritzon(2001)의 연구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연구 결과 Canter와 Fritzon(199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구적 동기에 해당하는 행동 특징들이 표현적 동기보다 더욱 많이 나타났다.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에서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한 127건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코딩

범죄현장의 행동 변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Canter와 Fritzon(1998)과 Fritzon(2001)의 연구를 검토하여 최종 41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Canter와 Fritzon(1998)연구에서 사용된 42개 변수 중 한국어로 번역시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개념이 중첩되고 수집된 자료에 의해 파악하기 어려운 변인 6개를 제외한 36개 변인과 Fritzon(2001)의 연구에 새롭게 포함된 5개 변인을 포함하여 41개 변인을 구성하였다¹⁾. 각 변인에 해당하는 행동이 존재하는 경우는 '1'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분석법을 통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차원척도 분석법은 자료의 측정 수준에 따라서 비계량적 척도분석(Nonmetric MDS)과 계량적 척도분석(Metric MDS)으로 나뉜다. 다차원척도분석은 대부분 서열수준(ordinal level)과 등간수준(interval level)의 자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서열수준일 때는 비계량적 척도분석이라고 하며, 등간수준일 때를 계량적 척도분석이라고 한다(장익진, 1998). SSA(Smallest Space Analysis)는 변인들 사이의 상관을 유클리드 공간상의 거리 값으로 나타내주는 비계량적 척도분석 기법으로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최소 차원으로 나타내려는 가정에 근거한다(Alison & Stein, 2001).

분석을 통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차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합도(degree of fit)를 검토하는데, 적합도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stress) 값을 사용한다. SSA에서는 스트레스 값 대신 격리(소외)계수(coefficient of alienation)를 사용하며 이는 변인들의 실제 상관 행렬이 SSA 공간상에 얼마나 잘 나타나있는가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20 이하의 값이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Alison

1) Canter & Fritzon(1998) 변인 중 제외 변인: hospital/institution, own home, victim known, set fire, did not alert anyone, distance travelled less than 1 mile
Fritzon(2001) 변인 중 포함된 변인: other crime, finance, outburst, cultural asset, crusade

& Stein, 2001; Canter & Fritzon, 1998). 자료의 분석은 SPSS 12.0K와 HUDAP (Hebrew University Data Analysis Package)을 사용하였다. HUDAP은 사회과학적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고전적인 통계가 갖는 정상분포, 양적 변인 등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하고 더욱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자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본 연구의 자료와 같은 이분 변인의 다차원적도분석을 위한 WSSA1은 변인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법으로 분석 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SSA와 동일하다. 또한 HUDAP에서는 변인명 입력 시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변인명은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결 과

대상자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127명의 연구 대상자 중에서 남자는 119명(93.7%), 여자는 8명(6.3%)이었고,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이 14.2%이고 고졸 이하의 비율이 73.2%로 대부분 학력이 높지 않았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이 67.7%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징은 방화범죄자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화풀이가 많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여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즉 낮은 학력과 결혼 적령기 이후에도 여전히 배우자를 찾지 못한 자신의 처지 등을 비판하여 현실에서의 불만을 방화범죄로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표 4.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	범주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19	93.7
	여	8	6.3
연령대	10세~19세	19	15.0
	20세~29세	29	22.8
	30세~39세	30	23.6
	40세~49세	33	26.0
	50세~59세	14	11.0
	60세~69세	2	1.6

분석 결과, 5개의 지역으로 변인들이 분류되었으며, 지역계수는 1로 매우 완벽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4개의 범주를 검증하는 것이었는데 분석 결과 5개의 영역이 산출되었으며, 산출된 모형의 5개 영역은 표 5와 같다.

표 5. 영역(region)별 변인 분류표

단위: (%)

A	B	C	D	E
car (28,3)	arson (15,7)	crusade (3,9)	trigger (18,1)	illegal entry (26,8)
derelict (35,4)	alcohol (46,5)	cultural asset (4,7)	argument (33,9)	daytime (18,9)
nonspecific (56,7)	outside (18,9)		partner (29,1)	finance (13,4)
multiple (33,9)			residential (33,1)	other crime (19,7)
seats (38,6)			lives endangered (42,5)	
witness (33,1)			accelerant (21,3)	
return (33,1)			targeted property (45,7)	
public view (62,2)			material brought (26,0)	
spree (35,4)			plan (45,7)	
serial (24,4)				
pubic building (10,2)				

표 5에서 제시한 바대로, 각 영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A영역을 구성하는 변인들은 노상의 목격 가능한 장소에서 연속 혹은 연쇄적으로 방화하고 여러 곳의 장소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방화 후 현장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보이는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B영역은 음주 후 상습적으로 방화하는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영역은 자기 과시적이거나 문화재와 같은 대상을 선정하는 특성을 갖는다. D영역은 촉발요인이 있거나 방화 이전에 다툼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으로 특정 대상에 방화하는 특성을 지니는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E영역은 불법침입, 다른 범죄 등이 방화와 같이 수반되는 특성을 보인다.

A영역과 B영역은 같은 영역으로 묶어 분석할 경우나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모두 지역계수는 1로 산출되어 두 경우 모두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A영역과 B영역이 구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다차원척도

보복적 방화(Destroy), 도구적 사물범주는 이익추구적 방화(Damage)라고 해석하여 명명하였다. 영문 단어의 의미와 다소 상이하게 해석된 것은 단어 자체의 뜻보다는 유형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해석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이하 본문에서는 해석된 명칭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3가지 주요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보복적 방화와 좌절에 의한 방화에 해당하는 변인들은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복적 방화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분류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과시적 방화와 이익추구적 방화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한국의 방화 현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Fritzon(2001)의 연구에서 과시(Display)로 분류된 행동 변인들 중 두 개의 변인만이 같은 주제로 분류되었으나 발생 빈도도 crusade 5건(3.9%), cultural asset 6건(4.7%)으로 매우 낮았다. 또한 손해(Damage)에 포함되었던 행동들도 illegal entry (34건, 26.8%), other crime(25건, 19.7%), finance(17건, 13.4%)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표현적 사람 범주는 2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arson(20건, 15.7%), alcohol(59건, 46.5%), outside(24건, 18.9%)는 좌절에 의한 방화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좌절에 의한 방화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을 좌절에 의한 방화와 구분하여 알콜의존성 방화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상세히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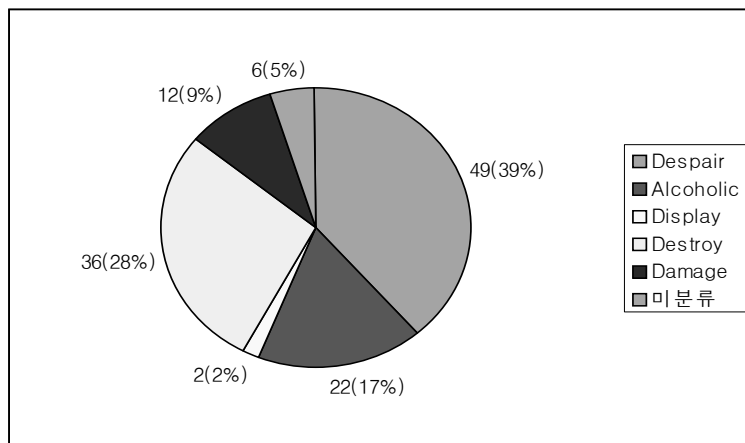
이외에 선행 연구에서는 도구적 사물(Damage)에 해당되었던 행동들이 대부분 좌절에 의한 방화로 분류되었고, 도구적 사람(Destroy)에서는 residential(42건, 33.1%), lives endangered by location(54건, 42.5%), material brought(33건, 26.0%)를 제외하고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유형별 분류 (Assining Case to Themes)

방화범죄자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들을 각 유형별로 할당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지수를 산출한 방식은 각각의 범행에서 한 주제 안에 속한 행동 변인들이 나타난 빈도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며, 다른 주제들의 점수의 합보다 해당 주제의 값이 더 클 경우에 값이 크게 나타난 주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A주제,

B주제, C주제가 산출된 모형에 대한 사건의 할당은 B주제와 C주제에 속한 행동들이 나타난 발생 빈도를 합한 값보다 A주제에 속한 행동 변인들이 나타난 값이 더 클 경우 이 사건은 A주제로 분류된다(Häkkänen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나타난 행동 빈도를 해당 유형의 총 행동 변인 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출한 값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분석 결과, 미분류된 사건은 6건(5%)이었고 가장 많은 49건(39%)이 좌절에 의한 방화로 분류되었다. 알콜의존성 방화는 22건(17%), 자기과시적 방화는 2건(2%), 보복적 방화는 36건(28%), 이익추구형 방화는 12건(9%)으로 나타났다. 좌절에 의한 방화에 가장 많은 사건이 할당되었고, 보복적 방화와 알콜의존성 방화의 순으로 사건이 많이 할당되었다. 알콜의존성 방화의 경우 분류 기준이 된 행동이 3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2건이나 할당되어 한국의 방화범죄자 분류 모형에서 중요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사건의 유형 분류

방화범죄자 유형별 동기분석

경찰청에서 발간되는 범죄통계와 대검찰청에서 발간되는 범죄분석 등의 공식 통계에서는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이욕,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우발적, 현실불만, 부주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공식통계에서는 방화범죄자의 동기가 대부분 우발적이거나 현실불만으로 분류되어 상세한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품, 원한, 성욕, 범죄은닉, 정신질환, 개인스트레스, 흥미, 미

확인으로 동기를 분류하고 유형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방화범죄자의 유형별 동기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63.529, p < .01$). 이익추구형 유형은 금품 목적이 50 %, 보복적 유형은 원한이 72 %로 나타났고 좌절과 알콜의존성 유형은 정신질환이나 개인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좌절에 의한 유형에서 흥미가 63.6 %로 나타났다.

〈표 6〉 방화범죄자의 유형

	전체	좌절	알콜의존	자기과시	보복	이익추구	χ^2	유의확률
금품	4 100	1 25.0	0 0	0 0	1 25.0	2 50.0	63.529	.000
원한	25 100	1 4.0	3 12.0	1 4.0	18 72.0	2 8.0		
성욕	2 100	1 50.0	0 0	0 0	0 0	1 50.0		
범죄은닉	7 100	0 0	0 0	0 0	5 71.4	2 28.6		
정신질환	14 100	8 57.1	4 28.6	0 0	2 14.3	0 0		
개인 스트레스	55 100	29 52.7	12 21.8	1 1.8	10 18.2	3 5.5		
흥미	11 100	7 63.6	3 27.3	0 0	0 0	1 9.1		
전체	118 100	47 39.9	22 18.6	2 1.7	36 30.5	11 9.3		

주요 유형의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된 5개의 유형 중에서 보복적 방화와 이익추구적 방화는 범행의 동기가 비교적 명확하고 주변인 수사 및 탐문 등을 통해 수사선 설정이 비교적 용이한 유형인 반면에 좌절에 의한 방화와 알콜의존성 방화, 자기과시적 방화는 개인 스트레

스, 정신질환, 흥미 등 개인 내적인 원인으로 인한 방화인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CCTV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사의 단서를 찾기가 어려워 연속/연쇄 방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유형이다. 또한 자기과시적 방화는 타인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화함으로써 매우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율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좌절에 의한 방화, 알콜의존성 방화, 자기과시적 방화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상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좌절에 의한 방화

첫 번째 사례는 2007년 2월~2008년 2월 사이 50여회에 걸쳐 주택과 차량, 노상의 쓰레기 등에 방화하여 차량 및 오토바이 15대, 주택 등 22억 상당의 물적 피해를 초래하고 3명 사망, 중상 7명 등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8년 2월 검거되면서 언론의 집중을 받은 사건으로서 범행 동기는 애인의 부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밤에 노상을 배회하다가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2년간에 걸쳐 50여회 연쇄 방화하였고, 방화 후 현장에 머물며 소화과정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2008년 10월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이에 놀라서 대피하려는 피해자 13명을 흉기로 찌른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고시원 방화 살인범으로 보도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것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판단한다”라는 이유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2) 알콜의존성 방화

2008년 3월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방화한 사건으로, 범인은 음주 후 방화로 인한 동종 전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사건에서도 음주 후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방화하던 중 현행범으로 검거된 사건으로 알콜의존성 방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판단된다.

3) 자기과시적 방화

2008년 2월 승례문에 침입하여 방화한 사건으로, 토지보상문제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국가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화한 것이다. 범인은 2006년에도 창경궁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승례문 방화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사건 범인은 자신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승례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화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과시적 유형에 해당한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 행동에 근거한 방화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방화범죄자를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5개의 유형 즉 좌절에 의한 방화, 알콜의존성 방화, 자기과시적 방화, 보복적 방화, 이익추구적 방화로 분류되었다.

5개의 유형 중에서 좌절에 의한 방화와 보복적 방화 및 이익추구형 방화는 현장 행동 특성에 의해 비교적 잘 분류되었으며, 알콜의존성 방화와 자기과시적 방화는 다른 유형과는 명확하게 분류되었으나 향후 연구를 통하여 행동 특성이 보다 상세하게 탐색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선행 연구들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표현적 사람 범주가 좌절에 의한 유형과 알콜의존성 유형 두 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 점이다. 알콜의존성 방화범죄자도 근본적인 심리적 기제는 좌절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알콜로 인한 상승적 방화가 유발된다는 점에서 두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유형에 따른 사건의 분류에 의해 좌절에 의한 방화(39 %)와 보복적 방화(28 %)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자기과시적 방화는 2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자기과시적 방화는 외국의 경우 폭탄테러의 형태를 보이거나 문화재, 산림,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므로 발생 비율이 낮을지라도 피해의 규모는 다른 유형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형이다.

각 유형의 특성별 범죄현장 행동을 살펴보면, 좌절에 의한 방화는 주로 노상의 자동차, 쓰레기 등이나 병원, 학교와 같은 공공건물 내의 버려진 물건에 라이타 등으로 방

화하며, 대상물이 불특정하고 다수의 물건 및 장소에 연속적으로 혹은 연쇄적으로 방화하기도 한다. 이들은 방화 후 현장에 되돌아오거나 CCTV 혹은 주변인에 의해 목격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검거되지 않는 경우 장기적인 연쇄방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알콜의존성 방화는 음주 후 상습적 방화로 발생되며 방화의 동종전과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과시적 방화는 타인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대상물에 대한 방화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대상물 선정에 신중하고 계획성이 높다. 보복적 방화는 피해자가 지인, 가족, 애인인 경우가 많으며 다툼, 논쟁에 의한 결과로서 방화가 발생한다. 특정한 물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방화를 사전 계획하면서 촉매제 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다툼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이를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익추구형 방화는 방화범이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서 방화를 행하며 주로 절도와 같은 다른 범죄와 같이 발생하고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범죄자의 유형과 범행 동기를 분석하였는데, 각 유형은 방화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절 및 알콜의존성 방화는 개인스트레스, 정신질환, 및 흥미에 의해 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흥미로 인한 방화는 불호기심, 상습적 방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방화광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유형과 방화광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유형의 범행 동기에 비하여 좌절 및 알콜의존성 방화의 동기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방화범죄자의 학력, 심리적 상태로 인하여 심리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습적 방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 도구가 사용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방화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 충분한 특성이 분석되지 못한 유형에 대해서는 추후 행동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방화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방화범죄자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형에 따른 방화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형민 (2004). 방화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 2) 장익진 (1998) 다차원 척도 분석법. 서울: 연암사.
- 3) 최인섭, 진수연 (1993).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 4) Alison, L. J., & Stein, K. L. (2001). Vicious Circles: accounts of stranger sexual assault reflect abusive variants of conventional interactions.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Vol. 12, No. 3, 515-538.
- 5) Almond, L., Duggan, L., Shine, J., & Canter, D. (2005). Test of the Arson System Model in an Incarcerated Population. *Psychology, Crime & Law*, 11, 1, 1-15.
- 6) Baumgartner, K., Ferrari, S. & Palermo, G. (2008). Constructing Bayesian Networks for Criminal Profiling from Limited data. *Knowledge-Based System* 21, 563-572.
- 7) Canter, D. (2004). Offender Profiling and Investigative Psychology.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1, 1-15.
- 8) Canter, D., & Fritzon, K. (1998). Differentiating Arsonists: A Model of Firesetting Actions and Characteristic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3, 73-96.
- 9) Canter D. & Heritage R. (1989). Multivariate Model of Sexual Offence Behaviour: Developments in Offender Profiling: Vol. 1.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 185-212.
- 10) Canter D. & Wentink H. (2004). An Empirical Test of Holmes and Holmes's Serial Murder Typ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 31, No. 4, 489-515.
- 11) Douglas J. E., Burgess A. W., Burgess A. G. & Ressler R. K. (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NewYork: Simon & Schuster.
- 12) Fritzon K. (2001).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ance Travelled and Motivational Aspects of Firesetting Behaviou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45-60.
- 13) Geller, J. L. (1992). Arson in Review: From Profit to Pathology.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5, 623-645.
- 14) Häkkänen, H., Puolakka, P. & Santtila, P. (2004). Crime Scene Action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in Arson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9. 197–214.
- 15) Holmes, R. M., & Holmes, S. T. (1996).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Thousand Oaks, CA; Sage.
 - 16) Kocsis R. N. & Cooksey R. W. (2002). Criminal Psychological Profiling of Serial Arson Crim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 (6), 631–656.
 - 17) Kocsis, R. N., Irwin, H. J., & Hayes, A. F. (1998). Organised and Disorganised Behavior Syndromes in Arsonists: A Validation Study of a Psychological Profiling Concept.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5, 117–130.
 - 18) Lewis, N. & Yarnell, H. (1951). *Pathological Firesetting (Pyromania)*, *Nervous & Mental Disease Monographs*, No. 82/437.
 - 19) Meloy J. R. (2000). The Nature and Dynamics of Sexual Homicide: An Integrative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 5. No. 1, 1–22.
 - 20) Mott N., L. (1999). Serial Murder–Patterns in Unsolved Cases–. *Homicide Studies*, Vol. 3, No. 3, 241–255.
 - 21) Park, J, Schlesinger, L. B., Pinizzotto, A. J. & Davis, E. F. (2008). Serial and Single–Victim Rapists: Differences in Crime–Scene Violence, Interpersonal Involvement, and Criminal Sophistication.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6: 227–237.
 - 22) Park, J. & Salfati, C. G. (2007). An Analysis of Korean Homicide Crime–Scene Ac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2, No. 11, 1448–1470.
 - 23) Turvey, B. E. (2002).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cademic
 - 24) Wachi, T., Watanabe, K., Yokota, K., Suzuki, M., Hoshino, M., Sato, A., & Fujita, G. (2007). Offender and Crime Characteristics of Female Serial Arsonists in Japan.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4. 29–52.